

# 유라시아 보건의료 지원활동 추진

##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 -간협 등 보건의료단체 협약식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들이 북한 등 유라시아 국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보건 의료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윤종필)은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 대표들과 유라시아 보건 의료 지원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윤종필 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9월 발족한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이 오늘 세 번째 공식행사를 갖게 됐다”면서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은 멈추지 말아야 할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식에 참여해주신 보건의료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보건의료계의 노력과 관심에 힘입어 한반도의 미래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약사회 조진휘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서명한 보건 의료단체 및 기관은 총 15곳이며, 보건교사회 이춘희 회장도 참여했다.

협약식에 이어 ‘유라시아 대장정! 이제는 보건의료’ 주제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각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과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유라시아 보건의료 지원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보건의료단체의 역할 및 준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서순립 제1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서순립 제1부회장은 “간호사는 통일시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를 책임질 주요 보건의료인력이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1999년 대의원총회에서 ‘남북 간 간호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북한 간호 관련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북한지역 주민 돌기 성금모금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돌기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며 꾸준히 통일준비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대한간호협회와 통일간호포럼이 함께 ‘통일시대, 간호계 통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협회는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제8차 장기사업 계획(안) 목표 중 하나로 ‘통일시대 대비 간호체계 구축’을 포함시켰다”면서 “앞으로 통일 간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북한 간호 관련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북한 간호 관련 기초연구, 탈북민 건강 지

원, 탈북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정착 지원 등의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한 보건복지부 박영식 국제협력관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한반도 보건안보에 필수적이며, 향후 건강수준 격차로 발생하는 통합 장애 극복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통일 대비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구축, 북한주민 예방접종 지원체계 구축 등 장기적 협력과제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강기찬 인도지원과장은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의 측면에서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보건의료 현 실태’ 주제로 강연한 조현범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외래된 보건 의료체계를 방지하는 것은 순조로운 남북통합에 저해요인이 된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분야의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 ‘중앙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신종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전담할 ‘중앙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뢰기관 등’ 고시를 발령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감염병 관련 연구,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 등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단, 이번 지정은 시설·장비 등을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시까지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서울 원지동에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이후 시설·장비 등을 완비할 예정이다.

중앙감염병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 등에 대한 전문치료병원 지정·육성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

로 추진돼 왔다. 중앙감염병병원은 감염병에 특화된 1병실 1병상을 원칙으로 100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한다. 평시에도 전체 격리병상의 20%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뒤 감염병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음압설비를 갖춘 수술실 2개와 생물안전 3등급의 검사실을 설치해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예정이다. 인력기준도 대폭 강화해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낙후된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응급상황 시 헬기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동대문 부지에서 서초구 원지동 부지로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공공보건교역체계의 대대적 기능개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 놀이동산 같은 친근한 디자인 인상적

## 투약 시 약물과 입원팔찌 바코드 함께 스캔

### 미국 아동병원 연수 다녀와서

아동간호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던 중 ‘재활난민’이라는 신조어를 알게 됐다. ‘재활난민’이란 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몇 개월씩 입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장애 아동들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입원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동양대 간호학과 조희연(3학년)·김진경(3학년)·황나래(2학년)·김은지(1학년) 학생팀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인 ‘DYU 글로벌 프론티어’에 ‘아동재활간호’ 주제로 지원해 선정됐다. 지난해 여름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아동병원 Texas Scottish Rite Hospital for children(이하 TSRHC)과 Texas Children’s Hospital, 재활병원인 TIRR Memorial Hermann Hospital을 탐방했다.

이중 특히 아동에게 맞춤형 체계적인 시스템과 환경으로 유명한 TSRHC 방문이 인상적이었으며, 이 병원에서 보고 느낀 점을 소개한다.

병원의 외관과 내부는 아동에게 친근하게 디자인됐다. 병원 입구에 크레용을 형상화한 구조물이 있어 아동의 관심을 끌고, 내부는 알록달록한 색과 유망 만화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마치 놀이동산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환경이 병원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 재활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병원의 안내 표지판은 그림으로 되어 있었고, 표지판과 같은 모양의 그림스티커를 아동에게 붙여주기로 치료받을 장소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진찰실, 재활치료실, X-ray검사실 등은 언어방, 병원이 전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입원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병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각 병실은 거의 1인실 또는 2인실로 구성돼 있었다. 병실마다 의뢰기기와 컴퓨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병원 지하에는 아동만을 위한 의족과 같은 보조기구를 만드는 공간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개개인의 성장속도에 맞춰 보조기구를 조정하고 있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고, 배우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로 투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에 있는 바코드와 아동환자의 입원팔찌에 있는 바코드를 모두 스캔한 후 투약하고 있는 것을 보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앞으로 간호사가 환자에게 어떠한 태도를 갖고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좋은 기회였다.

### 조희연 (동양대 간호학과 3학년)



텍사스 스코티스 라이트 아동병원 견학을 마친 동양대 간호대학생들이 병원 간호사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POINT 꼭! 사용하세요.**

**2014년도 분 회원복지포인트가 2017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소멸됩니다**

포인트 미사용 회원분들은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일치 전에 포인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ww.nurselife.or.kr | ☎ 1566-3137

#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세 ... 전년 대비 56.3% 증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남성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2015년 4872명에 비해 2744명(56.3%) 늘었다. 2016년 전체 육아휴직자(8만9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로 2015년 5.6%와 비교하면 2.8%p 증가했다.

2016년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이용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이 전체의 58.8%로 가장 많았다.

30인 미만 기업(17.3%),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12.4%),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11.4%) 순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달’ 전체 이용자 수는 2016년 2703명으로 2015년 1345명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 2016년 남성 이용자 수는 2396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의 비율은 88.6%로 나타났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아빠의 달’ 이용자 수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전환 확산과 지원기간을 2016년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6개 권역센터  
**www.RNjob.or.kr**

서울·강원	☎ 02) 2268-2631~3
인천·경기	☎ 032) 441-2926
대전·충북·충남	☎ 042) 825-0749
대구·경북	☎ 053) 756-8487
부산·울산·경남	☎ 051) 442-3824~5
광주·전북·전남·제주	☎ 062) 222-5025

# 중앙고시교육원의 오랜 전통 다양한 학습자료

**1일 2회** **이메일 모의고사문제 제공** **무료**

**무료 신청하기**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랜 전통의**  
**간호·보건 전문교육원**

- 국가고시 학원부분에서 대한민국 이머징경영인 대상수상
- 보건·간호분야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소개
- Best of Best 합격수기
- 2006년부터 연속 E-Trust 인증
-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평생교육시설

**합격수기**  
간호직 합격수기 5개월만에 합격했어요. 54675 회원님  
안녕하세요~저는 경북 간호직 공무원에 합격한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발령을 기다리던 중에 간호직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게 되어 수험기간은 5개월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려면 5개월 남짓의 시간이 남아있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개인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전통 있고 간호직 강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앙고시교육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5과목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국어도 암기과목 중의 하나였는데, 특히 문법, 한글 표기법 등의 부분들은 암기해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국어 강의가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민 교수님께서서는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시켜 주시고 암기하는 법도 알려 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영어는 제가 특히 어휘가 많이 취약해서 공부하면서도 모르는 단어들은 따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쉬는 시간마다 보았고, 문법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 틀린 문법문제들은 따로 체크 해두고 시험에 임박했을때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한국사는 흐름을 잡고 매일매일 공부하였는데 전날 배운 걸 한번 읽고 공부하면서 흐름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전공과목은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기본 이론서를 다 보고는 전공문제 풀면서 모르는 부분을 교육원에 계속 질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이틀에 한 번 기출문제를 계속 풀면서 오답을 따로 정리했고, 정리한 오답은 시험 전날까지 한 번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건고시 합격수기** 지난 시험에 낙방후 합격했어요. 52532 회원님  
저는 지난해 낙방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였지만 계획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태해져 며칠씩 쉬기도하고 처음에는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다보니 학습효율이 떨어졌고..... 시험에 실패..... 그 동안의 내태함을 크게 누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험자료를 구하는데만 바빠 미처 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받은 학습자료를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의 시험학습계획은 시험 2주 전까지 모든 시험준비를 끝내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때 교육원의 핵심요약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틀림이 메모해 두었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 정리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격하였습니다.

**개인별 맞춤영 학습진도표 제공**

**합격비법**  
소정지 무료제공  
합격비법  
스마트폰 강의 무료 제공! 수강횟수 무제한!

**중앙고시교육원의 합격시스템!**

1. 전과목 이메일 모의고사 무료제공
2. 영어단어 이메일 모의고사 무료제공
3. 스마트폰(모바일) 강의 무료제공 \*수강횟수 제한없이 무한반복 수강 가능
4. Mp3 강의 무료제공
5. 진단평가 모의고사 무료 제공
6. 기본서 문제집 무료 제공
7. 과목별 요약집 무료 제공
8. 기초영어 강의 및 교재 제공
9. 면접 교재 및 강의 제공
10. 시험관련 정보 SMS 발송

\* 직렬에 따라 제공되는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